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보내는 일곱번째 글

3분만에 어이없이 끝난 6월제직회

**“이의 있다”고 손을 들었음에도 “찬성있으므로 통과됐다”고 선언
항의를 “소란피운다”면서 무더기 날치기 통과, 부끄러운 회의진행**

지난 6월 11일, 금요일예배가 끝나고 6월 제직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직회는 3분도 안돼서 끝이 났습니다. 5월달의 제직회 서기보고가 끝난 뒤 “지난 달 제직회 때 내가 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왜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차귀동집사가 묻자 서기인 박창영집사가 “차집사는 자격이 정지된 상태여서 질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변, 차집사가 사회를 맡은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 장로에게 “헌법에도 없는 교인자격정지라고 하는데 무슨이유로 어떤 조항에 의해 처벌한 것이냐?”고 묻자 박제임스장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다른 집사와 장로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박제임스 장로는 손안에 든 제직회 보고서를 흔들면서 “회의가 소란스러우니 이대로 통과하자”고 제의, 일부 교인들이 “찬성합니다”로 화답하자 “이의 있습니다”고 소리 지르는 반대의견은 무시한채 “찬성이 있으므로 통과되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회하겠습니다”면서 숨도쉬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운 뒤 사회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날치기로 유명한 과거의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날치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폐회동의도 없이 사회자 스스로 폐회시킨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면 사회자는 “찬성하느냐”고 묻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발표되면 “이의 있느냐”고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 통과시키고 이의가 있을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안건을 확정하는 것은 초등학교 반회의에서도 이루어지는 회의의 기본 상식입니다.

제직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재정보고, 보고서조차 배부안해 재정보고서 안주느냐 항의하는 김춘혜권사에게 “미쳤다” 망발

수많은 안건을 토의도 없이 통과시킨 것도 잘못인데 그나마 절차를 무시한 통과였으니 성도여러분들은 이날의 제직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이며, 재직회의 사회자 일 수가 있습니까? 결국 제직들을 모독한 것이며 동양선교교회의 성도 여러분 모두를 모욕한 정말 한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날 제직회에서는 재정보고서조차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직회가 끝난 뒤 김춘혜권사님이 이승래집사에게 “재직회 순서지에 이렇게 재정보고서가

첨부됐다고 돼있는데 못 받았다.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자 "나는 모른다"고 답변했고 이어 옆에 있던 엄문섭, 이세훈 장로가 "이 집사 답변할 것없어! 가자"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권사님이 따라가면서 "무슨소리냐? 여기 첨부됐다고 했는데 없지 않느냐?"면서 제직회보고서를 보여주자 이세훈장로는 큰소리로 "종이로 나를 친다. 미쳤다"면서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이날 제직회는 항상 배포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보고서조차 나눠주지 않은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홍민기목사 담임목사로 청빙, 당회서 결정

홍목사 섬기는 교회, 장로 한명없고 당회도 없고 운영위원회가 치리 체육대회 20여명 참가하는 상가 5층에 있는 개척한지 3년여된 교회,

이날 제직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된 안건중에 당회보고란에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홍민기 목사를 당회장으로 한 당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당회장의 최종 청빙 결정은 당회가 아니라 공동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회는 그들이 주장하는 치리기관으로서 마땅히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 원로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새벽과 주일을 포함해서 4번의 설교만으로 당회장으로 결정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수락한 홍목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홍목사에 관한 충분한 홍보가 없었으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홍민기목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장미 A상가 5층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홍목사는 2007년에 이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지 겨우 3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교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느 구석에도 장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당회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광고를 보면 이 기구가 당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 수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다면서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중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있는 사진 2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교세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은 분은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www.togetherchurch.com 전화 02-417-7851)

○



우리는 흥민기목사가 상가 5층에 교회를 설립한 개척교회 3년의 경력 소유자이며 교인 수도 많지 않은 작은 교회의 목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흥목사; 교회이름 바꿔라, 땅재판 중단하라, 조건부 담임목사 수락
40년의 역사, 40여개 지교회, 7개 신학교가진 교회이름 바꾸라니..**

문제는 흥민기목사가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등 6명의 장로들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실로 놀라움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 첫째, 동양선교교회라는 이름을 바꿀 것, ▲ 둘째, 현재 진행중인 강준민목사와의 땅재판을 중단 할 것 등입니다.

이 중에서 첫번째인 교회이름 변경에 관해서는 원로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등 거의 전체 교인들로부터 심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동양선교교회는 올해로 40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에 동양선교교회인 우리 교회는 우리교회 출신의 교역자들만 50여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구의 구석 구석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교회인 동양선교교회는 미국과 남미, 유럽, 호주, 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등에 40여개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60여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남아공화국, 중국 등 세계 각 지역에 7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선교교회는 단순하게 “LA에 있는 성공한 이민 교회”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했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는 설립된지 3년밖에 안된 개척교회가 아니다.

동양선교교회 “동”자도 모르는 홍목사가 바꾸자고 하다니....

한마디로 동양선교교회는 설립한지 3년밖에 되지 않는 개척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민기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3년밖에 안돼 홍목사님 마음대로 이름도 바꾸고 상가건물의 5층에 자리잡고 있는 장소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선교교회는 거의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으로 전세계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 이시간에도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더구나 동양선교교회의 “동”자도 모르는 홍민기 목사가 청빙 조건으로 없애자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분의 신앙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조건인 땅문제 재판의 중단 입니다. 소위 “땅재판”은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장로 등이 이끄는 소위 그들 당회의 정통성이 걸린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장로들은 강목사의 잘못을 바로 이 “땅 문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민기목사는 왜 이문제를 청빙 조건으로 내걸었을까 하는 의구심과 이와 관련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새로 부임할 담임목사가 제시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 교인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교회이름 바꾸려는 것은 박장로 등 당회의 추진목표

임동선목사님 내쫓고 과거흔적 지워버리려는 고의적 의도

문제는 이같은 홍목사의 청빙조건을 듣고 이를 수락한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흥인 장로 등 6명이 이끄는 당회에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동양선교교회의 당회라면 이런 황당한 조건을 제시한 목사는 거들떠 보지도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당회원들 주변에서는 바로 그 조건이 당회가 추진하려는 목표라면서 홍민기목사를 이용해서 표면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박제임스 장로를 포함한 6

명의 장로들은 이 기회에 설립자인 임동선목사님을 내쫓고 그리고 교회 이름도 바꿔 모든 과거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워버리자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건물 잡히고 돈 빼낼려다 이사장이 임목사님이어 실패 박장로 임목사님과 진실 공방, 발언제지위해 마이크 끄기도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6명의 장로들은 지금 정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 장로들은 교회이름을 바꾸려는 것은 물론 교회도 팔아먹을 자세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이들 장로들은 교회건물을 잡히고 돈을 빼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측은 우리교회의 법적인 최고 책임자인 President가 임동선목사로 돼있음이 밝혀지자 돈을 달라는 장로들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자 박제임스장로는 광고시간에 신성한 강단에 올라가 방송시설을 이용해 임동선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으며 마침 그때 입장한 임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오히려 박제임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하자 장주영목사를 동원 화급하게 축도를 하게했고 임목사님의 해명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끄도록 하는 실로 해서는 안될 일들을 연출 한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 여러분은 "임목사님이 집사들의 압력에의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서명했다"는 박제임스 장로의 주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일이 없다. 박제임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교인 앞에서 설명한 임동선 목사님의 주장을 믿습니까? 혹시 박제임스장로의 얘기를 믿는 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박제임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말씀중에 장주영목사에게 축도를 하도록 강요, 말씀을 못하게 했고, 축도가 끝난 뒤 다시 설명하는 임목사님의 마이크를 꺼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까? 다시 또 묻겠습니다. 제3자가 "사실이다"고 주장하고 당사자가 만인 앞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하면 여러분은 어느쪽을 믿게 됩니까?

교회를 통째로 강탈하는 세력 준동 가능하다 더 늦기전에 정신차려야 산다. 코리아나 뉴스 경고

이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합니다. 지난 6월 16일자 코리아나 뉴스는 동양선교교회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동양선교교회는 자산보호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회를 통째로 강탈하는 세력이 준동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더 늦기전에 정신차려야 산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심에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사사로운 관계나 어설픈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유린되는 것을 지켜만 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나서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충성된 종"은 멍하니 쳐다보는 자는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위해 싸우며 고통을 참으면서 땀을 흘리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를 때 "예"하

고 대답하면서 나서는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몽땅 시큐리티 가드 사용비용이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나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목사밑에서 수 백만달러에 이르는 우리들의 헌금을 빼돌린 하수인인 장주영 재정국장이 하는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어야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가지조차 싫다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고 싸움만 있는 교회는 싫다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우리가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비상대책 특별기도회를 갖고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월드미션 신학교 대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와서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입니다.

이 특별기도회에는 우리교회에서도 시무하셨던 김성웅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능력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매주일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흥회에 온것 같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기도회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찾아 오시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 전 교인들에게 배부되고 큰 파장이 일자,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예배시간에 사회자를 동원, "배달된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등 당황해 하면서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글의 모든 내용은 철저한 사실검증을 마친뒤 게재한 것입니다. 만일에 의문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분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신분은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